

# 경북자치경찰청, 교통안전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

청송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모범운전자·녹색어머니 참석 교통사고 근절 방법 등 모색 활동 관련 애로 사항 청취도

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청송경찰서 회의실에서 교통경찰·모범운전자·녹색어머니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청송은 주왕산국립공원과 주산지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올해에도 11월 말 기준, 63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청송을 방문했다. 청송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경찰과 이를 적극



적으로 지원하는 모범운전자·녹색어머니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고, 회원들의 활동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. 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

은 “경찰의 든든한 지원단체인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”며, “지역의 교통환경 특성을 잘 살피, 이를 토대로 더 나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3월과 6월에 각각 포항(남부)과 경산에서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. 김영동 기자 ga7799@gailbo.com